

## 서울복지실태조사 10주년, 최신 복지정책 반영한 정책대상별 재구조화와 12분야·30지표 체계 구축

### 서울시민 복지수준 파악과 복지정책 설계·성과 모니터링 기초자료 위해 복지실태조사 실시

2012년 서울복지기준선 수립 이후, 서울시민의 복지욕구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통계청 승인을 받았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 거주 내국인이며, 목표표본 규모는 3,000가구이다. 표본추출틀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를 이용하였다. 표본배분은 권역별 통계의 안정적 산출을 위해 각 권역에서 30개 조사구 우선 할당 후 가구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권역 내 자치구별 표본배분은 가구수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구 내 조사구의 가구수에 비례해 표본을 배분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가구를 방문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두 달간이며, 응답한 가구수는 총 3,019가구였다.

[표 1] 조사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 모집단: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 표본추출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목표오차 및 표본규모	- 조사구 규모: 서울시 300개 조사구 - 조사가구수 및 인원수: 3,000가구 - 주요 조사항목인 가처분소득, 주택전용면적, 생활비 등의 평균 추정에 대한 목표상대표준오차는 서울시 전체 추정의 경우 1.8% 이내, 5개 권역별 추정의 경우 1.8~4.9% 수준을 만족하도록 함
표본추출방식	- 서울시 5개 권역 구분 - 분류지표: 25개 자치구별 지역, 일반 및 아파트 조사구
표본배정방식	- 5개 권역별 표본배분: 우선 할당(30개 조사구) 후 비례배분 - 각 권역 내 구별 표본배분: 가구수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법 적용 - 각 구 내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가구수 비례배분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일대일 가구 방문 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 2022년 복지실태조사 문항은 생활실태, 분야별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의식, 3개로 구성돼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최근의 복지환경과 서울시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별로 문항 구성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개발·선정해 주기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서울시민의 생활실태 영역은 가구구성 및 거주현황, 경제활동, 소득,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실태, 건강과 의료이용, 식생활 실태, 사회적 관계 및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전 조사 문항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은 문항을 반영하고, 주요 지표 산출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분야별 복지서비스 이용 영역은 소득보장, 아동돌봄, 성인돌봄, 청년복지, 중장년복지, 1인가구로 구성된다. 2022년 조사에서는 정책 대상별로 복지실태를 파악하도록 재구조화하였다. 복지의식 및 욕구 영역은 서울시민의 생활 수준, 복지정책평가, 복지의식과 욕구로 구성된다.

[표 2] 2022년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문항

대분류	중분류	세부 문항	
생활 실태	일반사항	동거가구원 수,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상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형태, 서울거주, 주거이동 등	
	경제활동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상태, 직종, 근로형태, 근로시간, 비경제활동사유,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 N잡과 플랫폼 노동 여부, 이유, 플랫폼 노동 업무	
	소득	가구원별 소득유형별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결핍, 물질적 박탈	
	지출	생활비 지출액, 지출 비중 큰 생활비 항목, 가구원별 경상이전지출 연간 총액	
	자산과 부채	자산액, 부채액, 부채용도, 부채원천, 이자연체경험, 부채상환 부담감	
	주거실태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 주택가격과 월세, 관리비, 주택규모, 주택위치, 주택 설비, 냉·난방비 금액과 부담 정도, 야간보행안전도, 주거복지사업 이용실태	
	건강과 의료이용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일상생활도움 필요 정도, 치매, 장애 여부,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키와 몸무게, 흡연·음주 여부 및 정도, 구강건강, 규칙적 운동, 건강 관리 노력, 우울감, 자살 충동 경험, 이유, 자살 시도, 전문가 상담경험과 극복방법 건강검진, 미충족 의료 여부 및 이유, 주된 이용 의료기관과 이유, 입원 및 응급실 이용 여부와 빈도, 연간 의료비와 부담 정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식생활 실태	식생활 형편, 식사 빈도(혼밥), 식사 방법, 과일섭취 정도	
	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사회적 고립, 외로움, 외출 여부, 은둔 지속 기간과 계기
			여가활동 정도,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어려운 점, 반려동물·식물 보유와 이유, 사회활동 참여 경험, 기부 경험과 금액·의향,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빈도, 타임뱅크 관련 문항
분야별 복지 서비스 이용	소득보장	저소득복지사업 이용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경험과 급여 및 미신청 이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신청경험과 미신청 이유, 재테크 여부와 수단 및 목적, 자산형성 지원방식,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실태, 고용서비스 지원방식,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방식	
	아동돌봄	영유아 기관이용, 기관유형, 이용시간, 추가로 필요한 시간, 낮시간 주 양육자, 기관 만족도 및 미이용 이유,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신청경험·이용경험·이용/미이용이유, 청소년 등교 여부, 미등교 이유, 귀가시간, 사교육 비용, 방과후 실태, 학교밖 이유, 방과후 자녀돌봄 지원, 아동·청소년 사업 이용실태, 임신 및 출산 사업 이용실태, 경력단절 가구원과 이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놀이시간 정도·충분 정도·불충분 이유	
	성인돌봄	가족돌봄 실태,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어르신 돌봄 정책요구	
	청년복지	영케어러, 청년사업 이용실태, 청년세대 정책요구	
	중장년복지	현재 고용상태 및 퇴직 후 근로 의견, 노후 적정 생활비, 노후준비, 중장년세대 대상 주요사업 이용실태	
	1인가구	1인 가구 생활실태(기간, 이유, 생활계획, 어려운 점), 정책요구, 1인가구 주요사업 이용실태	
	생활수준	생활영역 만족도, 생활영역별 서울시 정책 및 지원수준 충분도	
복지 의식	복지정책 평가	서울시 복지정책방향·복지대상·비용부담·복지수준 의견, 복지주체, 비용부담의 사, 정책우선순위 분야 및 대상, 1인가구 정책설계 대상, 서울시민 복지기준 인지도	
	복지의식과 육구	주요 복지시설 이용실태 및 육구, 복지시설 형태 선호도, 다문화 인식	

## 서울시민 복지실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 반영 위해 12개 분야, 30여 개 지표 개발·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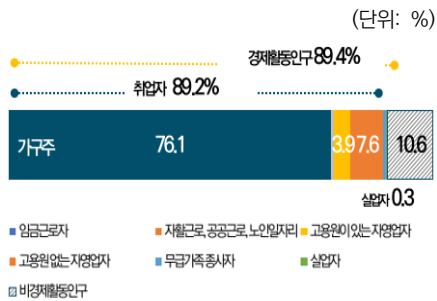
서울시민 복지실태의 분야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주거실태, 건강과 의료이용, 사회적 관계 및 활동 등 12개 분야, 약 30개의 지표를 개발·선정하였다. 또 주기적으로 복지실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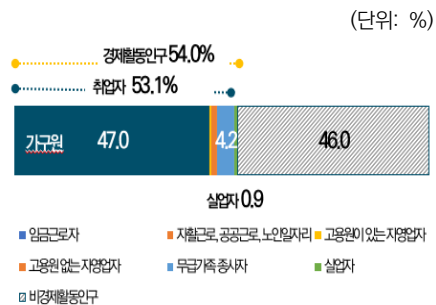
[그림 1] 2022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야별 주요 지표

## 경제활동 영역 주요지표: 취업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주요 지표로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취업률은 89.2%, 실업률은 0.3%, 비경제활동인구는 10.6%이다. 가구원의 취업률은 53.1%, 실업률이 0.9%, 비경제활동인구는 4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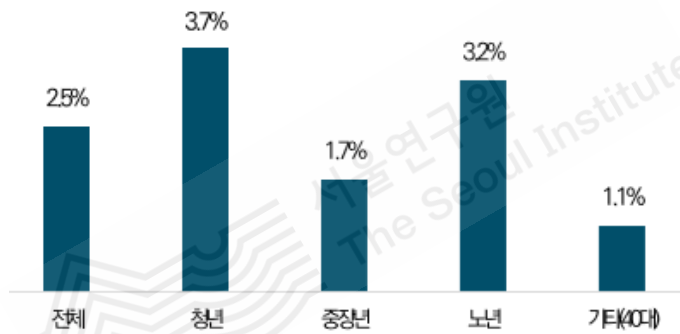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그림 3]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 소득·지출 영역 주요지표: 소득, 빈곤율에 더해 '22년부터 심각한 사회적·물질적 박탈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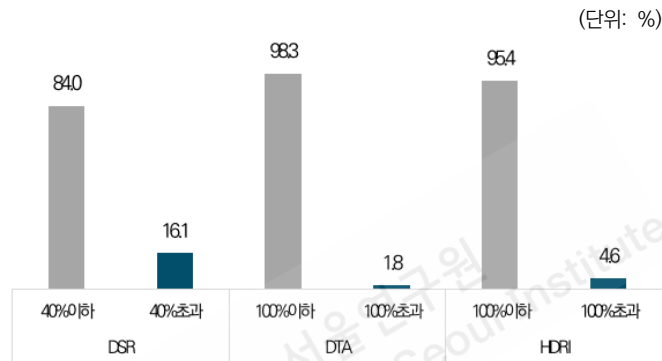
빈곤율은 표본 가구에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검토하였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의 9.6%,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1.0%, 4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2.3%,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3.7%로 확인됐다. 전체 표본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1%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신규로 유럽연합에서 활용하는 심각한 사회적·물질적 박탈률을 소득·지출 영역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살펴보았다. 아직 국내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이 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13개 항목 중 7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박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서울시 표본 가구 중 2.5%로 밝혀졌다.



[그림 4] 세대별 심각한 사회적·물질적 박탈률

## 자산·부채 영역 주요지표: 자산형성 위한 재테크 비율, 가계부채 평가하는 가계부실위험지수

자산형성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5%로,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 연평균 가구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재테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구의 56.5%는 재테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중 59%가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구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가계부실위험지수(Housing Dept Risk Index; HDRI)를 분석한 결과, 100%를 초과하는 위험가구가 약 4.6%로 나타났다.



[그림 5] 가계부실위험지수

## 주거실태 영역 주요지표: 소득 대비 주택가격/주거비용 비율, 최저주거기준, 야간보행안전도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 평균은 15.0배, PIR 중위수는 13.3배로 확인됐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Rent Index Ratioin; RIR) 평균은 30.5%, RIR 중위수는 23.4%로 분석됐다. 임차가구의 월 임대료에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월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인 월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율(Housing Cost to Income Ratio; HCIR) 평균은 33.8%, HCIR 중위수는 26.9%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방의 개수 기준, 면적 기준, 설비기준 중 하나 이상 미달하는 가구는 표본 가구 중 3.8%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보행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는 응답은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주로 도심권, 동북권 거주 응답자와 여성, 20대 이하 그리고 비아파트 거주자의 응답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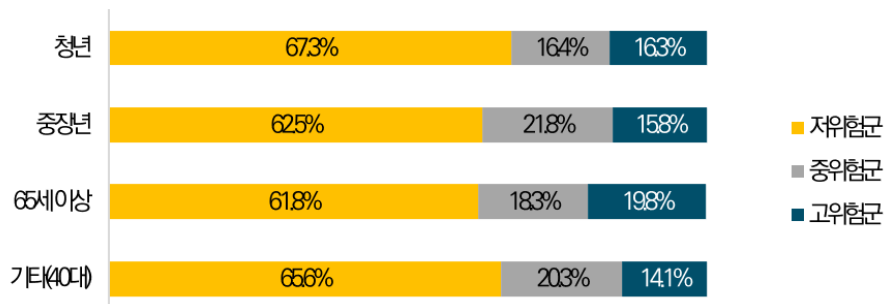


[그림 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건강과 의료이용 영역 주요지표: 만성질환 유병률, 우울감, 미진료 가구 수, 미충족 의료율

가구주 중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는 14.9%, 가구원의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6.1%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의 우울감을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척도(CESD-11)로 조사분석한 결과, 우울 감이 있는 응답자는 35.4%로 확인됐다. 세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의 우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 정도에 따른 고위험군 비율은 노년, 청년, 중장년 순으로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가구는 전체의 2.3%로, 동남권 가구와 가구소득 1~3천만 원 미만 가구의 미충족 의료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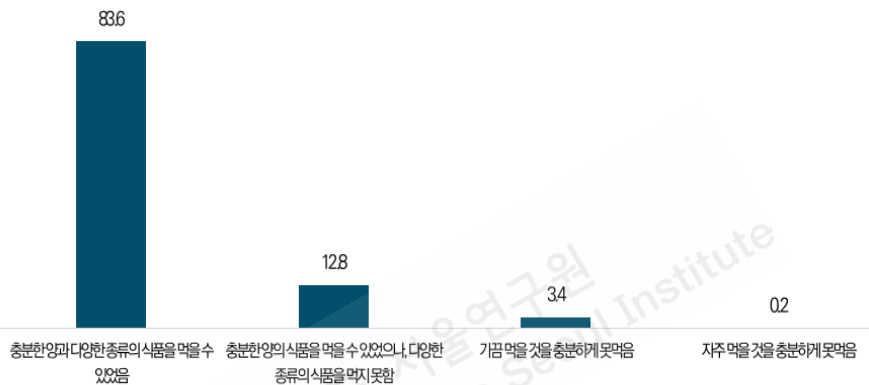


[그림 7] 세대별 우울감

## 식생활 실태 영역 주요지표: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 섭취 의미하는 식품안정성

식품안정성이 가법게 낮은 그룹(최근 1년간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했다는 응답자)은 12.8%, 식품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그룹(최근 1년간 가끔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응답자) 3.4%, 식품안정성이 심하게 낮은 그룹(최근 1년간 자주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응답자) 0.2%로 분석됐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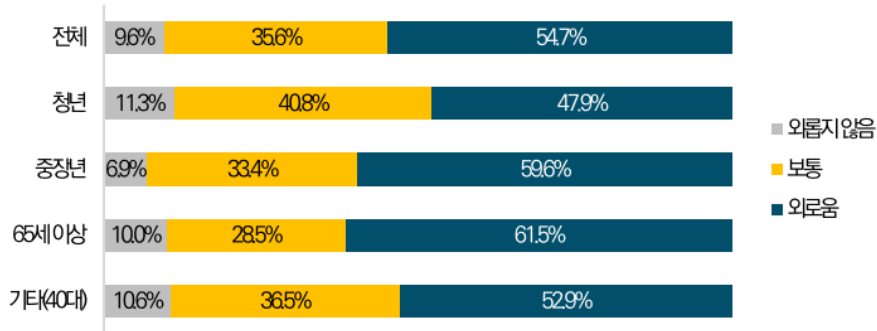


[그림 8] 식품안정성

## 사회적 관계·활동 영역 주요지표: 사회적 고립 상태, 가족원의 은둔 실태, 외로움 정도

사회적 고립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거나,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0%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에만 외출하거나, 집 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은둔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가구의 2.6%가 은둔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UCLA 외로움 척도로 외로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가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보통(35.6%), 외롭지 않음(9.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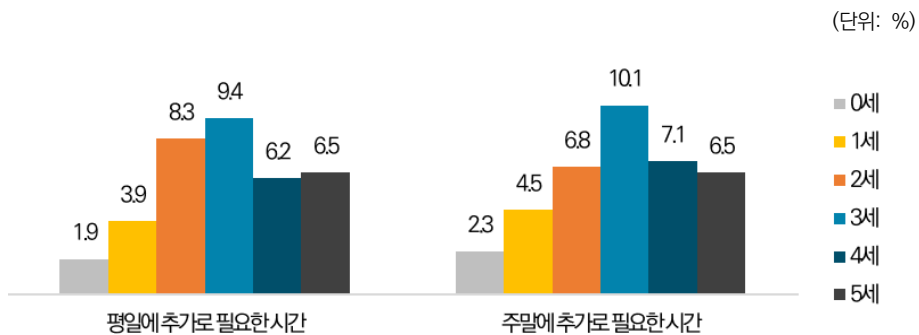




[그림 9] 세대별 외로움

### 아동돌봄 영역 주요지표: 영유아 혼자 혹은 미성년 자녀끼리 시간 보내는 돌봄공백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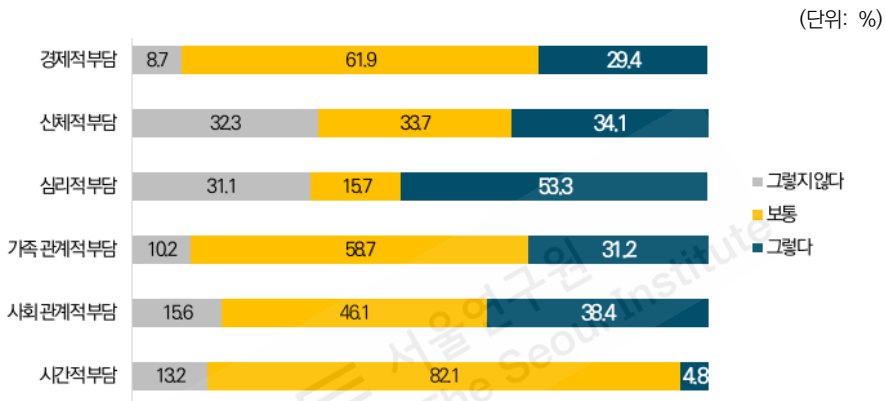
학령기 아동의 26.4%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11.8%, 초등학교 고학년의 27.5%, 중학생 29.0%, 고등학생 33.5%로 확인됐다. 영유아 자녀 돌봄 공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주일 평균 평일에 추가로 필요한 시간은 자녀 나이 3세인 가구가 9.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세(8.3시간), 5세(6.5시간), 4세(6.2시간), 1세(3.9시간), 0세(1.9시간) 순이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녀가 3세인 가구가 추가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0~1세보다는 4~5세에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0] 미취학 아동의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간

**성인돌봄 영역 주요지표: 돌봄 필요한 가구원 수, 가족 돌봄으로 겪는 부담의 수준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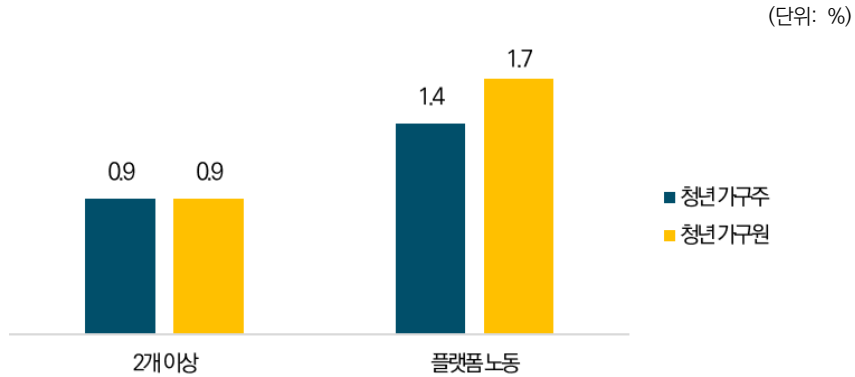
조사 대상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0.7%로 분석됐다. 가족 돌봄으로 겪는 부담으로는 심리적 부담(스트레스, 우울 등)이 5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사회 관계적 부담(가족 돌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제약, 38.4%),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건강 악화 등, 34.1%), 가족 관계적 부담(가족의 비협조, 다툼 등, 31.2%), 경제적 부담(공공민간 돌봄서비스 구매 비용 등, 29.4%) 순이었다. 가족 돌봄에 따른 심리적, 사회 관계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가족 돌봄에 따른 부담감

**청년복지 영역 주요지표: N잡 청년 가구주/원 수, 플랫폼 노동 경험 유무, 청년 NEET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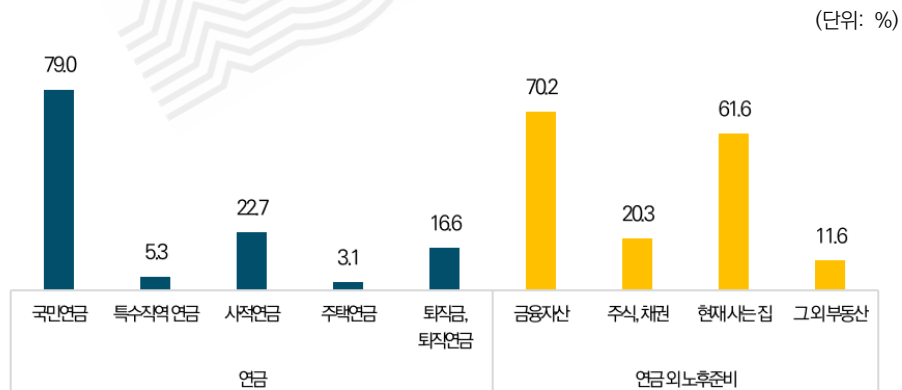
청년 가구주와 청년 가구원의 일자리 개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일자리 개수는 1개이고,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 가구주와 청년 가구원은 각각 0.9%로 나타났다. 취업한 청년 중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청년 가구주는 1.4%, 청년 가구원은 1.7%로 확인됐다. 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은 청년 가구주는 디자인(38.1%)과 바이럴 마케팅(36.0%)이 가장 많았고, 청년 가구원은 영상 관련 업무(27.1%)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29세 청년 중 취업, 교육, 훈련 중이지 않은 NEET(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비율은 3.6%였다.



[그림 12] 청년 가구주와 가구원의 N잡 경험과 플랫폼 노동 종사 비율

### 중장년 복지 영역 주요지표: 중장년의 노후준비 비율과 연금, 퇴직금 등 노후준비 방식

중장년 중 62.5%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중장년의 79.0%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사적연금(22.7%), 퇴직금 및 퇴직연금(16.6%) 등 연금과 그 외 금융자산(70.2%), 주식·채권(20.3%)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3] 중장년의 노후준비 현황

## 1인가구 영역 주요지표: 1인가구 근로형태, 주택유형, 만성질환 유병률, 사회적고립과 외로움

1인가구 영역은 서울연구원이 2021년에 실시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 도출한 4대 분야(경제와 자립, 주거와 안전, 건강과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제와 자립 분야에서 1인가구의 근로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75.6%를 차지했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87.5%로 확인됐다. 주거와 안전 분야에서 주택유형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아파트 거주 비율(24.7%)이 낮고, 오피스텔(24.7%)과 고시원(4.1%) 거주 비율이 높다. 점유형태는 월세(47.0%), 전세(30.9%), 자가(21.6%) 순으로, 다인가구보다 자가 비율이 낮고 월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4.8%, 야간에 골목길 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12.8%로 나타난다. 건강과 식생활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은 15.7%, 우울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19.0%이다. 식품안전성이 상당히 낮은 1인가구는 7.0%로 전체 가구(3.4%)보다 많고, 식품안전성이 심하게 낮은 1인가구는 0.2%에 해당한다.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1인가구는 20.7%, 외로움에 속하는 1인가구는 55.3%로 전체 가구 비율보다 소폭 높고, 1인가구 중에는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